

하나님이 의심될 때 필요한 것 (말1:1-5)

말라기는 '나의 메신저'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이다. BC586년에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후 50년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랐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다. 성전이 회복되기만 하면, 곧 메시야가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이방민족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성전을 세우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가뭄과 병충해로 경제적인 상황이 나쁜 현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말3:14)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의심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메신저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신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절대적인 조건을 보면, 형 에서가 더 나았다. 먼저 장자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다. 예로부터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어받을 우선권이 있었다. 또한 동생보다 사냥을 잘 해서, 다른 부족들과 싸워도 능히 이길만한 힘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서 형이었던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사람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능력을 가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택하신 것이다. 그것이 절대적인 사랑이다.

롬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는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탁월하거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다.

말1: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며, 에돔(에서의 별명)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한다. 실제로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길을 막았고(민20장),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바벨론의 편을 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자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혼혈족을 만들어 이두매 족속이 생겼고, 이두매 사람중의 하나였던 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는 잔인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일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말1:5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의심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의심될 때 필요한 것 (말1:1-5)

1. 마음으로 만나기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경배와 찬양(Worship)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3. 말씀 나누기 (Word) : 오늘의 말씀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 1)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2)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다시 세우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하지만 100년 가까이 아무런 변화가 없자,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였습니까?
- 3) 말1:2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 4) 절망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경험들이 있다면 하나씩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이 없습니다.
- 5) 이번 주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할 것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4.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Work of Prayer)

- 1)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 2)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새롭게 시작하는 셀모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 A-Level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